

중국 어문교육에서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연구

이정숙 중국 산동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근현대 시기 외국문학교육의 기능
- III. 『어문과정표준』상의 외국문학교육
- IV. 중국의 외국문학교육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과 중국의 국어(어문)교육은 이미 백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은 1895년에 반포된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에 따라 중국은 1904년 청정부가 반포한 『주정학제장정(奏定學制章程)』¹⁾에 의해, 현대적 의미의 국어 교과서가 출현했다. 그런데 자국의 언어, 문자와 문학을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 양국 모두 번역된 외국문학이 수록되어왔다. 국어교과서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된 외국문학의 수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현행 교과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록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의 어문 교과서에서는 꾸준히 12~18% 정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년에 한편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²⁾

이러한 원인은 번역외국문학이 양국의 국문학사에서 갖는 지위와 성격

-
- 1) 중국의 교육역사 상 처음으로 정식 선포되어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된 학제로 현대식 학제의 기본 양식과 틀을 확립했다. 1911년 청정부가 해체될 때까지 사용되었다(遊小培, 2004: 115).
 - 2) 이에 대해서는 이정숙(2016), 이정숙(2017)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번역외국문학’을 중국 문학의 ‘특수한 구성성분’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문 교재 내 적극적인 수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수록의 변천과정, 교수학습방법의 계발 등의 연구와 논의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김우창(1988)은 일찍이 외국문학이 그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교육과정에서 공식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에 대해 가장 처음 문제제기를 하였다. 송무(1990)도 교육과 문화수용의 관점에서 외국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교과편성의 기본 골격 안에서 가능한 교육방안을 찾자고 제안하였다. 한기상(1994)은 중학교 교과서에 치중된 외국문학소개가 국가나 학생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또 적절한 객관적 해설도 없이 명작 순례처럼 나열된 것을 비판하며 국문학과의 상호보완적 교호작용은 전반적인 문학 교육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권오현(2003)은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세계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며, 또 실제로 세계문학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나아가 우리의 문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그동안 세계문학교육의 실상이나 원리 혹은 방향을 거리를 두고 짚어보는 데 대단히 인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국어교육에서 이에 대한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번역문학을 중국문학의 ‘특수한’ 구성성분으로 규정짓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번역문학 자체 본질에 대한 인식이다. 주요한 논의를 보자면 謝天振(1992), 王向遠(2015)은 번역문학은 원작이 또 다른 언어로 전환된 텍스트로 새로운 작품이 형성된 것이며, 그것은 문학작품의 일종의 존재 양태이며 확장방식이라고 규정하였다. 曾豔兵(2006)은 부르디외의 문화생산장의 이론을 들어 중국문화의 장에서 수용된 외국문학은 원래의 외국문학과 다르며 번역은 아무리 충실했던 번역일지라도 재창조의 예술로서 단순히 외국문학에 속하지 않으며 그것은 본국문학의 일부분에 속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번역외국문학의 어문 교육 안에서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이

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인식, 즉 중국의 근현대시기 어문교육에서 번역외국문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시대·사회적 관점과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제출된 중국의 고등학교 어문교육과정인 『보통고중 어문과정 표준(2017)』(이하 『어문과정표준』)을 분석하여 중국에서 번역외국문학이 갖는 현재적 교육 가치와 의의를 밝혀 한국의 국어교육에 비추어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³⁾

II. 근현대 시기 외국문학교육의 기능

1. 실용과 계몽의 시대담론 견인

중국은 아편 전쟁이후 서구열강과 일본제국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서양의 과학, 군사 기술 등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부강의 길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 부국강병을 이루는 ‘중체서용’이 당시의 주류담론이 되었고 교육부문에도 영향이 미쳤다.⁴⁾

1904년 국어학과가 설립되면서 편찬된 『최신국문교과서(最新國文教科書)』에는 서양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수록된다.⁵⁾ 그 중 대부분은 영·미의 선

-
- 3) 중국의 근현대 어문교육의 시기 중 정치 이데올로기의 작용이 심했던 1949년 신중국 건립이후부터 2000년 초까지는 연구의 범위에 넣지 않았다. 또한 2014년에 제출된 초·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있긴 하지만 본 논문은 시대에 따른 번역외국문학의 긍정적 기능과 그 변화 내용을 분석하는데 그 논의점을 두었기에 가장 최근에 제출된 고등학교 어문 교육과정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4) 중체서용은 양무파의 학자 심육계가 1896년 『만국공보』에 발표한 글에 「中學為體, 西學為用」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양무파를 대표하는 장지동에 의해 그 이론의 사상체계가 확립되면서 청말기 사회의 혁신 중에 주요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郭睿, 2015: 28-29).
 - 5) 1896년 제작된 소학용 교재 『몽학과본(蒙學課本)』, 『몽학독본(蒙學讀本)』에도 이미 「위성

교사들이 번역한 글을 수정하여 다시 교재에 수록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수록된 작품을 통해 서양의 각종 실용지식을 소개하고 보급함으로써 중체서용의 담론이 교육부문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성광(聲光)」「전열(電熱)」, 진보적 정치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예비입헌(預備立憲)」「군주입헌(君主立憲)」 등이 있으며, 「희랍삼哲(希臘三哲)」「뉴우튼(奈端)」「다케오하(廣瀨武夫)」「윌리엄 허셜(侯失勒威廉)」 등의 위인전기 내용이 있다. 특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제5권에 수록된 임서(林紳) 번역⁶⁾의 라퐁텐 우화나 이솝우화의 관점이다. 아래 소개된 우화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슴과 호랑이’,⁷⁾ ‘쥐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요행히 죽음을 모면한 사슴이 후회하며 뺨을 중히 여겼는데 뺨은 나를 죽일 뻔하고 경시했던 발은 나를 살렸다. 그래서 천하의 물건은 오직 실용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幸而得免 鹿乃自悔曰 吾重吾角 吾角幾殺我；吾輕吾足 吾足實生我, 故天下之物, 惟實用者 斯可貴’)

턴」, 「소크라테스의 대화」, 「콜롬버스」 등과 같은 서양의 위인전기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郭睿, 2015: 39-42).

- 6) 임서는 외국어를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하면 자신이 글로 쓰는 방식으로 11개(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벨기에, 스웨덴, 그리스, 스페인, 노르웨이)국, 98명의 작가의 163종의 작품을 출판하였다. 그 중에는 발자크, 디킨스 등 그가 중국에 처음 소개한 외국 작가작품이 많이 있다. 이솝우화는 1903년 엄배남(嚴培南), 엄거(嚴驥)가 통역을 하면 임서가 받아쓰는 형식으로 상무인서관에서 간행하였다. 비록 임서의 번역문은 모두 문언문 형식으로 번역문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의 번역본은 당시 지식인계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루쉰, 괴말약 같은 인사들도 청소년시기에 임서가 번역한 소설의 애독자들이었다(王立明, 2003: 49).
- 7) 김태준은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만주, 인도 등 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로 이솝우화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국 교과서에 실린 여우와 호랑이 이야기는 이솝우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김태준, 1981: 119). 이러한 주장에 근거할 때 임서는 번역과정에서 중국의 정서에 맞게 원작에 등장하는 ‘사자’를 ‘호랑이’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슴이 호랑이를 만나 빠른 발로 위험을 피하지만 뺨이 나뭇가지에 걸려 잡아먹힐 뻔한 이야기로 사슴의 후회하는 말을 통해 실용이 중요함을 교훈으로 전하고 있다.

나는 이빨 밖에 가진 것이 없다. 당신은 단지 쥐 한 마리를 놓아줬다고 여길 뿐 은혜를 갚을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만 앞으로 쥐를 경시하지 마라. (吾向者幾膏公牙, 公義為所縱著鼠耳, 豈意鼠亦有以報公耶。請公易更輕鼠矣)

‘사자와 쥐’의 우화에서도 자신을 살려 준 사자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쥐가 그물을 끊어 사자를 살려 준다는 이야기로 임서가 번역 한 이솝우화는 사슴의 ‘발’과 쥐의 ‘이빨’ 등을 통해 당시의 실용을 강조하던 사회정치적 담론을 의식적으로 반영하여 교훈으로 전하고 있다.(郭睿, 2015: 43-45)

임서는 이솝우화를 계몽교육의 매우 좋은 재료로 여겼다. 그는 우연의 형식을 빌려 국민들이 각성하고 힘을 도모하게 하여 구국자립의 애국적 포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胡麗娜, 2013: 48).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소학교에 제한되었고 중학교 교과서에는 아직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당시 교육의 변화는 전면적이기 보다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경향이 전면화 되는 것은 1919년 5.4운동 전후이다. 중국의 선진 지식인 계층은 청일전쟁 등의 연이은 실패와 원세개의 등극, 장훈의 복위 등으로 다시 봉건전제의 사회로 회귀되는 일을 겪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양의 과학·군사기술과 정치제도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바탕을 둔 중국 민중들의 정신문화를 인도(人道), 민주, 자유, 과학 등으로 표현되는 근대식 서양 계몽사상으로 개조해야만 진정으로 민족과 국가를 구하고 독립부강을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진독수와 호적 등의 선진 지식인들은 1915년 신문화운동의 모체가 된 잡

지 『신청년』을 통해 인도, 민주와 과학을 그 핵심으로 하는 계몽 담론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계몽 담론은 문학 영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이른바 문학혁명을 통해 주류담론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영역을 포함하여 전체 사회문화영역으로까지 파급되었다. 당연히 문학혁명을 통한 중국의 계몽운동은 이 시기 국어교과서 내용의 선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郭睿, 2009: 65).

劉洪濤(2003: 68-72)는 1920년부터 1949년 이전 당시 유행했던 24종의 중학교 어문교재와 7종의 고등학교 어문교재를 대상으로 번역가와 번역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래 표⁸⁾와 같이 번역 작가는 주작인, 호적, 루쉰 등으로 대부분이 신문화운동의 주역임을 알 수 있다.

〈표 1〉 1920-1949년의 24종 어문 교재 내의 번역가

| 순서 | 번역가 | 번역편 수, 수록 수 | 주요 번역 |
|----|----------|-------------|--------------------------|
| 1 | 주작인 | 32편, 52회 | 러시아, 일본, 동유럽, 아프리카의 작품들 |
| 2 | 호적 | 11편, 41회 | 모파상(프랑스) |
| 3 | 하면준(夏丐尊) | 14 편, 36회 | 에드먼드 앤치스(이탈리아) |
| 4 | 루쉰 | 15회 22회 | 유스케(鶴見佑輔, 일본), 에로셍코(러시아) |

〈표 2〉 1920-1949년의 24종 어문교재 내의 번역 작품

| 순서 | 작품 | 작가 | 국가 | 번역가 |
|----|------------|-------------|-------|-----|
| 1 | 마지막 수업(11) | 도데 | 프랑스 | 호적 |
| 2 | 베를린 포위전(9) | 도데 | 프랑스 | 호적 |
| 3 | 소년 애국자(9) | 아미치스 | 이탈리아 | 하면준 |
| 4 | 두 어부(7) | 모파상 | 프랑스 | 호적 |
| 5 | 소년필경(6) | 아미치스 | 이탈리아 | 하면준 |
| 6 | 성냥팔이 소녀(6) | 안델센 | 덴마크 | 주작인 |
| 7 | 한방울의 우유(5) | A.Agdronjan | 아르마니아 | 주작인 |

8) 〈표1〉, 〈표2〉는 劉洪濤(2003: 68-72)의 논문을 발췌하여 필자가 표로 정리하였음.

| | | | | |
|----|---------|------------|-----|-----|
| 8 | 한 농부(4) | Azorin | 스페인 | 서하춘 |
| 9 | 선구(4) | Juhani Aho | 폴란드 | 주작인 |
| 10 | 매국소년(4) | 도데 | 프랑스 | 호적 |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품은 도데의 「마지막 수업」으로 애국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다음을 차지하는 「베를린 포위전」, 「소년 애국자」, 「두 어부」 등도 모두 보통 민중들의 애국주의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신문화운동의 주역들은 번역외국문학을 통해 국민의 시대적 각성을 촉구하고 국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도를 담고자 하였다.

이상의 진술들을 통해 근현대 시기 중국은 서양 열강과의 대결 속에서 서양의 선진과학기술과 선진적 정치제도를 유입하여 부국강병을 꾀하는 과정에서 국어 교재에 번역외국문학을 수록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국어 교재에 수록된 번역외국문학들은 국민 계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고 할 수 있다.

2. 국어와 문학교육의 발전도모

교과서에 수록된 번역외국문학은 국민 계몽의 선구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학예술의 특징도 다양한 표현방식을 요구하는 신문학에 매우 적합하였다(郭睿, 2015: 234). 문학혁명의 지도자 중 한사람이었던 호적은 구 시대의 문자, 문언(文言)을 ‘죽은 문자’, 그 죽은 문자를 이용하여 창작된 문학을 ‘죽은 문학’으로 규정하고 백화문(白話文)만이 살아있는 문자이며, 백화문으로 창작된 문학만이 살아있는 문학이라고 정의하였다(朱德發, 2009: 37). 신문화운동의 주역들은 백화문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자 하였으며 국어 교과서야말로 가장 적합한 선전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5.4운동 이후 1920년대 전후 중국에서는 백화 문학 창작이 막 시작될 시기였고 교재 편집자들은 교재를 편찬할 때 적합한 문학작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과

거 문언작품에서 구하든가 부득이 새로 백화문을 이용하여 창작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작가들이 백화문으로 쓴 작품들은 문학성이 강하지 못했고 과거 문언작품은 문학혁명의 단절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래서 번역외국문학은 각별히 중요하였고 교재 수록에 있어 많은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다(张红秋, 2015: 184). 그러나 중국의 번역가들은 동서양의 사유와 표현의 방식과 특징이 매우 달라 전통적 중국 문법으로 외국작품을 정확하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전통적 문언문의 형식을 빌려 외국작품을 의역했던 임서의 번역은 문학혁명을 기점으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당시의 번역가들은 번역에 있어 서양의 언어 습관과 사유방식에 근거하여 작품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번역 양식은 중국사회의 어휘와 문법체계의 다양화와 문학교육의 발전을 가져온다.

우선, 외국문학의 번역으로 어휘가 풍부해졌다. 중국의 문언문 역시 그 어휘가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표의성의 단음절에 심오한 뜻을 함의하고 있어 개념이 모호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다. 루쉰 등은 외국작품의 단어와 문장구조 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외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모델로 국가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였다. 실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 공업, 화학, 철학, 정치경제와 사회문화 관련 용어들은 모두 당시 외국문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개념들이며, 점점 중국사회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중 인격, 자유, 개인 등의 새로운 어휘는 삼종사덕(三从四德)로 대표되는 중국전통여성의 윤리관을 악습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郭睿, 2015: 152). 언어의 발전은 사상의 변화도 가져왔다.

품사와 문장구조 등 문법도 다양화되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품사론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낭만주의, 교원, 작가, 현대화, 독자 등과 같은 접미사의 활용으로 새로운 단어가 생성되었다. 외국문학의 내용을 정확하고 생동적으로 묘사하려는 노력은 조사 구성에서 的, 得, 地의 구분과 품사의 순서 등 많은 부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문장구조면에서도 영어의 to be 구조를 정

확하게 번역하기 위해 중국의 전통적인 문장 구조에는 없었던 판단문 “是”자 구가 생성되었고 이외에도 인칭대명사 앞의 관형어, 복합문장구조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郭睿, 2015: 148-178).

문학교육의 방면에서도 자유형식의 시와 소설 등의 유입으로 소재가 일반 민중들과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해졌으며 일상생활의 자세한 묘사 등의 기법을 선보였다. 1920년 상무인서관에서 간행한 백화문교재 『백화문범(白話文範)』⁹⁾에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변모를 알 수 있다. 이 교재에는 모두 7편의 외국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도데의 「마지막수업」, 후드 (Thomas Hood, 1788-1845)의 시 「縫衣曲(Song of The Shirt)」,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항해」, 톨스토이 소설 「세가지 문제」, 모파상의 「鈴兒草 (Bell-flower)」, 볼랜드(Gabruel Volland)의 「기인(畸人)」 등이다. 백화문 운동의 결과로 신문학 초기의 외국 번역시는 고전시와 비교해 볼 때 주로 말하는 것과 같은 통속어를 사용하여 형식은 자유롭고 읽기에도 쉬웠다. 번역시 「縫衣曲」는 봉제여공의 일의 고됨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심리를 자유롭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묘사했다. 소설은 시보다 더 많은 사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백화문범』에 수록된 소설은 보통사람의 일상생활과 인물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일상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소재에 있어서도 학교와 학생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수록하여 학생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管賢強·孟慶樞, 2015: 27-30).

어문 교재에 수록된 번역외국문학은 평민, 평등, 아동, 진보 중심의 당시 변화된 교육 이념을 구현하였으며 국어와 문학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9) 1920년, 상무인서관에서 중등용 교과서로 간행하였지만 검정을 받지 못해 보충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외국문학작품이 처음 수록된 중학교용 교재로 중국의 국어교과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총4권으로 되어있으며 4개 학년용이다(管賢強 孟慶樞, 2015: 26). 현재 산동대학교 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921년판과, 1927년판의 전자책을 보면 출판년도에 따라 내용과 순서가 조금씩 다르다.

III. 『어문과정표준』 상의 외국문학교육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사회는 예측이 쉽지 않은 매우 변화무쌍한 시대이다. 학생 시절에 획득했던 확고 불변한 지식으로 변화무쌍한 평생의 도전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교육의 역할은 새로운 문제적 상황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역량’이 부각되고 있다(서영진, 2015). 각국의 학교교육도 이러한 변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주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00년 이후 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6년,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을 핵심으로 문화기초, 자주발전, 사회참여의 세 방면으로 「중국 학생발전 핵심역량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서의 핵심역량은 OECD 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 설정한 3개 범주 9개 영역의 핵심역량에 기반 한다. 이에 따라 2003년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¹⁰⁾ 2016년 9월 제안서(徵求意見稿)를 제출하여 수정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16일 『보통 고중 과정방안과 어문 등 학과 과정표준(普通高中課程方案和語文等學科課程標準2017年版)』을 발표하였고, 2018년 가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새로 제출된 중국의 고등학교 어문 교육과정을 분

10)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2001년 『전일제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판(全日制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稿)』이 새롭게 발표되었고, 10년 뒤인 2011년 『전일제 의무교육과정 표준 2011년판(全日制義務教育課程標準2011年版)』을 제출되면서 2012년 가을부터 실시되었고 2017년에는 어문 등 교과서가 부분적으로 새로 보급되었다.

석하여 현시기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문과정표준』의 주요 구성과 특징

1) 어문의 성질과 이념

『어문과정표준』은 전언(前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은 경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생활의 변화, 시대적 사회모순의 변화에 대한 교육적 응대로서 제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지도사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치방향, 시대적 요구, 과학적 논증, 지속적 발전의 원칙을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003년판이 크게 세 부분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7년판은 과정성질과 기본이념, 학과 핵심역량과 과정목표, 과정의 구성, 과정내용, 학업의 양과 질, 실시건의, 부록 등 총 7부분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어문과목의 성질에서 ‘언어문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밝힌 후 어문은 조국의 언어문자 운용에 있어 생활과 일, 학습 중의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과정임을 제시였다. 어문이 ‘과목’을 넘어선 언어와 문자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언어문자와 문화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어문 성질에 대해서는 민족문화와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제기하고 있다. 어문의 기본 이념으로 입덕수인(立德树人),¹¹⁾ 핵심역량(核心素养),¹²⁾ 실천성(实践性), 시대성(时代性), 다양성(多样性)이 제안되었다. 어문 과정표준 수정분과의 책임자인 王甯(2016: 5-7)은 교육이념에 어문의 시대성을 강조한 데 대해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따라 인

11) 立德树人은 중국공산당 18대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출된 교육방침이다.

12) 중국의 핵심역량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李藝·鐘柏昌(2015), 褚宏啟(2016), 崔允漷(2016), 顧之川(2016).

류의 생활, 인류가 지식을 얻는 방법과 인간의 학습방식이 모두 변했으며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교육의 새 경로를 찾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시대성과 더불어 민족성을 강조하였다. 어문은 모국어와 역사에 근거하므로 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서양의 방법이 시사점을 줄 수는 있으나 서양화가 현대화,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 특색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갖는 어문이 당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들이 사회에 발 디딘 이후에도 어떤 사상규범과 행위능력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어문의 핵심역량이 제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 핵심역량과 교육목표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언어의 구성과 운용, 사유발전과 고양, 심미감상과 창조, 문화전승과 이해의 4개 방면에서 어문 핵심역량이 제시되었다. 王甯 (2016: 6)는 언어는 의사소통과 사유의 도구로서, 언어문자는 문화의 담지체 이자 문화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서, 또한 언어문자로 된 작품은 인류의 중요한 심미대상으로써 어문 핵심역량은 이러한 언어와 사유, 문화, 심미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어문의 핵심역량이 도출되어졌음을 설명하였다.

교육의 목표는 상술한 4가지 핵심역량에 따라 12개로 세분화하였다. 다음 표는 4가지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의 목표이다.

〈표 3〉『어문과정표준』의 과정 목표

| 어문핵심역량 | 과정목표 |
|----------|--|
| 어문구성과 운용 | 1.언어축적과 구성 2.언어표현과 소통 3.언어정리와 통합 |
| 사유발전과 고양 | 4.형상사유능력의 강화 5.논리사유의 발전 6.사유품성의 고양 |

| | |
|----------|--|
| 심미감상과 창조 | 7.조국 언어문자의 미감 체험의 증진 8.문학작품 감상 9.미의 표현과 창조 |
| 문화전승과 이해 | 10.중화 문화의 전승 11.다양한 문화의 이해 12.당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

언어문자의 속성에서 연유된 핵심역량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목표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18개의 학습임무군으로 나누어 4가지 핵심역량의 실현을 구체화하였다.¹³⁾ 학습임무군은 필수, 선택성필수, 선택의 세 가지 단계를 두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동시에 자주적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2. 교육과정상의 외국문학교육

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4번째 문화전승과 이해의 방면은 어문학습을 통한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과정목표 11」을 통해 다른 민족과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본보기 삼아 문화적 시야를 넓힐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과정목표 11」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언어문학작품의 학습을 통해 존중과 포용을 깨닫고, 다른 민족,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해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한다.

『어문과정표준』(2018: 7)

언어문자의 작품의 학습을 통해 존중과 포용의 자세를 배우고, 타국가,

13) 학습임무군의 신설은 교사주도의 전통적 학습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자주적 학습을 강화하고 어문과정의 실천성을 강조한 것이다(王甯, 2018: 1-3).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본보기삼아 인류문화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목표는 「학습임무군11. 외국 작가작품 학습」의 내용으로 구체화 시켰다. 「학습임무군 11」은 외국 작가작품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포용, 개방적인 문화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외국문학 작가작품에 대해 처음으로 교육적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임무군 11」의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과 서로 다른 민족문화 간의 공통 담론과 문화 차이에 대한 탐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 감식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임무군17」의 상호문화 주제 학습은 「학습임무군11」을 기초로 학생들이 선택에 따라 더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학습임무군17』 상호문화 주제 학습

본 임무군은 “외국작가작품”의 임무군을 기초로 외국문학명저와 문화경전의 주제를 심화 연구한다. 학생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인류문화를 사고하도록 이끌고, 인류사상의 정화를 습득하고, 개방적인 문화태도의 배양, 비판사유의 발전, 문화이해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어문과정표준』(2018: 30-31)

그러나 필수과정이 아닌 선택과정의 학습 내용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지, 학교 현장에서 교육 내용으로 충실히 반영이 될지 아직 미지수인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작가작품을 상호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부록2의 「수업내외 독서자료 건의」는 시, 소설, 산문, 희곡, 언어문화이론서로 분류하여 학생들에게 읽기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추천된 외국 작가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4〉〈부록2 수업내·외 독서자료 검의〉, 『어문과정표준』(2018: 58)

| 장르 | 제목 |
|-----------|--|
| 시 | 하이네, 푸시킨, 휘트먼, 타고르 등의 작품 |
| 소설 |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위고 「레미제라블」, 발자크 「외제니그랑데」, 디킨스 「데이비드 코퍼필드」,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롤링 「장 크리스토퍼」,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모파상 단편소설, 오 헨리 단편소설 등 |
| 극본 | 세익스피어 「햄릿」 |
| 언어문학 이론저작 |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

그러나 이러한 교육목표와 내용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추천 독서 자료의 목록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2003년판에 비해 시 부문에서 하이네, 휘트먼이 추가되었고 소설은 위고 「노트르 담 파리」, 톨스토이 「부활」, 디킨스의 「피크워크 클럽의 기록」 등의 작가의 작품 목록만 바뀌었을 뿐이다. 추천된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다양한 문화의 이해보다는 경전과 인류 문화 정화의 측면을 강조했던 과거의 선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서구의 고전 명작 만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 수록 제재의 선정은 중국에서도 재고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IV. 중국의 외국문학교육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특화된 연구

우선, 중국의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특화된 연구 영역으로의 확장은 한국에 매우 시사적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어문교육의 역사적 과정에서 번역외국문학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시대·사회적 관점에서, 국어교육의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성격과 지위에 대한

논리를 구축해 가고 있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외국문학교육의 관점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 성과를 실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양국의 역사적 과정과 경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윤지관(2013: 17)은 중국은 서구문학의 수용을 통해 신문화운동을 이끌어 근대성을 획득해 갔고 일본도 번역하는 과정이 메이지 시대 근대 국가를 정립해 가는 한 축이었다며 한 문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거나 스스로를 혁신할 때 번역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번역을 통한 서구의 수용은 합방 이전부터 일본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었고 일본이라는 창을 통해 근대를 경험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왜곡, 즉 일종의 이중 번역된 근대라는 한국 특유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식을 형성해 온 국어교육 100년의 역사에서 번역외국문학의 수록 양상과 교육적 기능, 시대적 역할은 적극 연구되어져 할 가치가 있다.

중국의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개방적 인식의 전환과 특화된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국어와 문학 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상호문화적 관점의 인식과 실천

두 번째, 번역외국문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교육을 실천하려는 중국의 교육적 관점도 매우 시사적이다. 한국도 이미 2012년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를 시작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총론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교육부, 2015.9.23).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안에서도 외국문학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언어 및 문화적 다원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상호문화적인 교류와 관계형성이

일상적인 상황으로 등장하였다(정영근, 2006: 33).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민현식(2016: 13)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세계의 관점으로 국제정치, 세계 경제, 세계 지리, 다문화, 문화다양성, 지구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초등 국어과에서도 한국어의 위상, 세계 언어의 다양한 이모저모를 초등 수준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중등 학교 과정도 예외적이지 않다. 다른 국가민족의 사고와 문화방식이 언어예술로 응집되어 있는 외국문학은 그 자체로 상호문화교육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문학작품이 번역으로 교류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언어의 본질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낯선 문화와의 소통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 학교 국어과 문학영역을 보면 ‘문학 갈래의 특성과 한국 문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진술되어 있고 국어자료의 예시에서도 ‘보편적인 정서와 다양한 경험이 잘 드러난 한국·외국 문학 작품’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체로 외국문학은 국어교육에서 보편 정서와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밝히는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등학교 문학과목에서도 번역외국문학은 따로 언급되지 않는다.

중국은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지위와 기능에 대한 부단한 논의를 통해 문학교육의 영역에서 외국 작가작품의 교육적 목표를 선명하게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포용, 이해에 대한 어문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외국 작가작품의 연구학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외국 작가작품을 읽음으로써 다른 국가와 문화의 면모 이해, 인류 정신세계의 풍부함의 체험, 외국고전 작품을 읽는 흥미, 개방적인 문화 태도의 배양, 문학작품의 감상능력과 문화적 소양의 향상 등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미 권오현(2010)과 김성진(2015) 등이 이러한 논의를 제기한 바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실제화 되고 있지는 못하다. 번역외국문학을 상호문화적 교육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중국의 사례를 국어교육의 과제 차원에서 적극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한중 양국의 국어교육은 이미 백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양국은 정식 국어학과가 설립된 이후부터 꾸준히 국어교과서에 번역외국문학을 수록하여 왔다. 본 논문은 중국이 어문교육의 맥락에서 번역외국문학이 갖는 성격이 한국과는 매우 다름에 주목하여 중국의 근현대시기 어문교재에 외국 문학작품을 수록하게 된 연원과 그 교육적 기능을 밝혔다. 그리고 『어문교육 과정』안에서의 번역외국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여 한국의 국어교육에 비추어 그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의 정식 국어학과 설립 직후부터 국어교재에 수록된 번역외국문학의 연원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번역외국문학은 국민 계몽의 역할과 국어와 문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중국의 『어문과정표준』을 분석하여 현재의 교육과정안에서 번역외국문학이 갖는 교육 가치와 목표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시대성, 민족성, 다양성을 강조한 4가지 어문교육 핵심역량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중 중 4번째 문화전승과 이해의 방면에서는 어문학습을 통한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다른 민족과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본보기 삼아 문화적 시야를 넓힐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에 따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과정목표로 설정하고 학습임무군을 두어 외국 작가작품의 학습과 상호문화 주제 학습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외국문학교육이 한국의 국어교육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밝혔다. 우선, 중국의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구태도는 한국에 매우 시사적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도 국어교육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번역외국문학이 갖는 지위와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한다면 국어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 번역외국문학을 통해 상호문화적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적 관점도 매우 시사적이다. 한중 양국은 지식에서 역량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미 빠르게 전지구화 되어 가는 시대에 번역외국문학을 보편성과 한국문학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이 상호문화적 삶의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번역외국문학의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이 부족한 논의가 양국의 국어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8. 4. 30. 투고되었으며, 2018. 5. 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6. 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5),『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5.9.23.), 2015개정교육과정 보도자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검색일자 2018.4.30.,
사이트주소 <http://ncic.re.kr/mobile.revise.board.view.do>
- 권오현(2003),『초·중등학교에서의 세계문학교육』,『해세연구』10, 25-38.
- 권오현(2010),『상호문화적 교육에서 낯섦 이해의 교육: 세계문학교육과 관련하여』,『독어교육』49, 7-37.
- 김성진(2015),『문학교육, 세계를 생각하다: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문학교육학』49, 35-58.
- 김우창(1988),『외국문학의 수용의 철학: 서양문학수용과 발전을 위한 서론』,『사회비평』1, 170-202.
- 김태준(1981),『이솝우화의수용과 개화기교과서』,『한국학보』7(3), 107-135.
- 민현식(2016),『국어교육의 철학과 정책』,『국어교육학』51, 5-52.
- 서영진(2015),『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국어 능력과 핵심 역량의 관계』,『국어교육학연구』50, 272-305.
- 송무(1990),『중등학교 외국문학교육에 대하여』,『중등교육연구』2, 95-116.
- 윤지관(2013),『세계문학을 향하여: 지구시대의 문학연구』,서울: 창비출판사.
- 이정숙(2016),『한·중 외국문학교육 비교연구: 중학교 국어·어문 교과서 상의 알퐁스도데의 작품을 중심으로』,『돈암어문학』30, 267-302.
- 이정숙(2017),『한국·중국의 국어교육에서의 외국문학작품의 수용양상 비교연구』,『인문학연구』27, 127-161.
- 정영근(2006),『상호문화 교육의 일반 교육학적 고찰』,『교육철학』37, 29-42.
- 한기상(1994),『국어교육과 외국문학의수용』,『국어교육연구』1, 203-215.
- 顧之川(2016),『論語文學科核心素養』,『中學語文教學』3, 15-17.
- 郭睿(2009),『語文教科書錄用外國文學的歷史考察』,『中國教育學刊』3, 62-66.
- 郭睿(2015),『近代國語(文)教科書外國翻譯作品的選錄』,北京: 語文出版社.
- 管賢強·孟慶樞(2015),『新文學、新精神:《白話文范》中的外國文學翻譯作品』,『南京師範大學文學系』
- 劉洪濤(2003),『現代中學語文的外國文學作品形態分析』,『中國現代文學研究叢書』3, 63-76.
- 李藝·鐘柏昌(2015),『談“核心素養”』,『教育研究』9, 17-23, 63.
- 謝天振(1992),『翻譯文學—爭取承認的文學』,『中國翻譯』1, 19-22.
- 王甯(2016),『語文教育與核心素養: 語文核心素養與語文課程的特質』,『中學語文教學』11, 4-8.
- 王寧(2018. 3.),『引領語文課程改革走進新時代』,『中國教育報』9, 1-3.
- 王立明(2003),『《伊索寓言》在中國的傳播途徑與方式』,『沈阳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6, 49-51.
- 王向遠(2015),『翻譯文學導論』,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遊小培(2004),「奏定學堂章程頒行百年祭」,『浙江社會科學』6, 114-117.
- 張紅秋(2015),「中國白話語文教材選編外國作品的百年歷程」,『중국어문학지』50, 173-206.
- 褚宏啟(2016),「核心素養的國際視野與中國立場: 21世紀中國的國民素質提升與教育目標轉型」,『教育研究』11, 8-18.
- 朱德發(2009),「重探 60年五四文學革命研究的誤區 -質疑“徹底反傳統文學”論」,『山西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5, 34-43.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18),『普通高中語文課程標準2017年版』,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曾豔兵(2006),「跨文化語境中的外國文學教學研究」,『外國文學研究』2, 161-167.
- 崔允漷(2016),「追問“核心素養」,『全球教育展望』5, 3-10+20.
- 學院學報』4, 26-30.
- 胡麗娜(2013),「西方兒童文學的中國化: 以《伊索寓言》的考察為例」,『文藝爭鳴』11, 46-50.

중국 어문교육에서 외국문학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연구

이정숙

본 논문은 중국이 어문교육의 맥락에서 번역외국문학작품이 갖는 성격이 한국과는 매우 다름에 주목하여 중국의 근현대시기 어문교재에 외국문학작품을 수록하게 된 연원과 그 교육적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안에서 외국문학작품의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중국의 근현대 시기 국어(어문)교재에 수록된 외국번역문학의 연원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국어 교재에 수록된 외국작품은 애국과 계몽의 시대 요구 담론에 적극 부응하였으며 동시에 서구의 진보적 사상과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휘와 문법이 풍부해졌다. 문언문 중심의 전통 문장과 달리 읽기 쉽고, 평민들의 일상적 삶을 묘사한 문학작품의 소개는 문학교육의 차원에서도 발전을 가져왔다.

다음으로 중국의 2017년 고등학교어문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외국문학작품의 교육 가치와 목표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4가지 어문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 문화전승과 이해 역량을 통해 다른 민족과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본보기 삼아 문화적 시야를 넓힐 것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문학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자세를 배우고 인류문화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목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어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 우선, 번역외국문학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태도, 두 번째, 번역외국문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교육 관점과 실천에 대해서 논하였다.

핵심어 국어교육, 어문교육, 외국문학교육, 핵심역량, 상호문화적 관점

ABSTRACT

Study on Chinese Foreign Culture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Lee Jungsuk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ing characteristics of Chinese foreign-translated works of literature, in comparison with Korean foreign-translated works of literature, and aims at clarifying their sources and educational functionalities. It also highlights the educational value of foreign-translated works of literature which compose the new educational curriculum of China

First, the sources of foreign-translated works of literature and their functionalities were analyzed. Foreign pieces included in Chinese language textbooks have the purpose of inspiring patriotism and calling for the enlightening of Chinese society. These translations also showed an abundance of effective use of vocabulary and grammar. Unlike traditional Chinese styles of literature, the foreign literature translations easier to read, and introduced many new works of literature, leading to a boost in literature education.

Second, the *Middle School Curriculum-2017 Edition* was emphasized in terms of the educational value and goals of foreign-translated literature.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its four-Literature Key Competencies, aims at using these works for educational diffusion and cultural understanding, to foster unity with other cultures and regions. This follows the main educational goal of using foreign-translated literature for deepening cultural receptiveness and embracement.

Finally, this study analyzes Korean foreign-translated works of literature and determines how they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active and open research toward foreign literature pieces and how, these works help in exploring diverse cultures and embracing an attitude of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KEYWORDS Korean Education, Chinese Education, Foreign Literature Education, Key Competencies, Intercultural Perspective